삼양식품, '면비디아' 글로벌 질주… 목표주가 200만원 육박

지난달 장중 164만원… 최고가 경신
한국공장 증설 등 성장 모멘텀 주효
증권가 "200만원, 무리한 전망 아냐"

삼양식품 밀양2공장에서 불닭볶음면이 생산되고 있다. /뉴시스

'불닭 신화'에서 '면비디아'까지, 삼양식품은 글로벌 라면 열풍의 주인공으로 불리며 새로운 별명을 쌓아가고 있다. 한국 공장 증설과 중국 생산기지 건설 계획이 겹치면서 성장 스토리에 힘이 붙자 주가는 200만원대를 바라보고 있다. 증권가 목표가는 190만원까지 치솟았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양식품 주가는 연초 대비 약 111.91%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32.13% 상승했다. 지난 28일에는 장 중 164만2000원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이와 함께 삼양식품을 바라보는 시장의 기대는 커졌다. 불닭볶음면 수출 확대와 생산능력 증설이 맞물리면서 성장 모멘텀이 높아진 탓이다. 대신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목표주가를 190만원으로 제시했다. 키움증권은 185만원을 제시했다. 메리츠증권은 175만원으로 끌어올리며 "실적 성장세와 글로벌 수요를 감안하면 200만원 진입은 무리한 전망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실적 지표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 삼양식품의 연결 기준 순이익은 2022년 803억원에서 2024년 2713억원으로 2년 만에 238% 늘었다. '불닭' 브랜드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미국·동남아·중동 등에서 매출이 고르게 확대됐고, 판다 익스프레스·졸리비 등 해외 외식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소스류 매출도 늘고 있다.

아울러 7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밀양 2공장은 연간 최대 27억 봉지 생산이 가능해 기존 공장과 합치면 공급 병목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여기에 2027년 1분기 중국 공장 가동 계획까지 잡혀 있어 글로벌 수요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시장에서는 주주 환원이 아쉽다는 평가다.

삼양식품은 2013년 이후 12년 연속 배당을 이어왔고, 주당 배당금도 2020년 800원에서 2024년 3300원으로 늘었지만, 순이익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며 배당성향은 같은 기간 13%에서 8%대로 낮아졌다. 이는 시장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유동성도 취약하다. 주가가 160만원을 넘어섰지만 거래회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고가 주가로 소액투자자 접근성이 떨어지고 유통 주식 비율도 낮아 기관 수급에 제약이 크다. 삼성전자·현대차처럼 액면분할로 유동성을 개선한 선례에 비춰 삼양식품에도 같은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은 최근 보유 목적을 4년 만에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바꾸며 배당과 유동성 문제에 개입할 여지를 넓혔다. 2020년 김정수 부회장 복귀 당시에도 같은 조치를 취하며 등기임원 선임안에 반대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주주환원 요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엇갈리는 코스피 전망… "매수 타이밍" vs "비중 줄어야"

개인, 빅테크·성장주 중점 매수
외국인, 기대감 낮춰… 매도 전환
"지수보다 종목 중심 대응이 유리"

지난 달 2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뉴시스

"지금이 가장 쌀때가 아닐까. 매수 타이밍이다."(주식 투자자 A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시기다.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적절하다."(외국계 투자은행 B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 '관세 전쟁', 닷컴버블에 비유되는 '인공지능(AI)거품, 더딘 경제 회복세 등 한꺼번에 쏟아지는 화살에 증시가 급등락하고 있다. 하지만 증시의 앞날을 바라보는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기관)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개인들은 코스피가 3100선을 지지선으로 보고 지수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 비중을 줄였다.

이들의 투자 입맛도 달랐다. 개인 투자자들은 반도체, 조선, AI 등 빅테크와 성장주를 사들이는 전략을 썼다. 외국인은 빅테크, 조선, 자동차, AI 등의 업종주식을 사들이며 위험을 분산했다.

◆ **네이버 주가 하락에도, 개미 '원픽'**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월 한달간 개인 투자자들은 네이버를 1조107억원으로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

이어 한화오션(2965억원), LG씨엔에스(1881억원), 두산에너빌리티(1759억원), LIG넥스원(1707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1576억원), SK텔레콤(1511억원), 삼성전저(1360억원) 등 덩치큰 종목들을 사들였다.

대형주의 가격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되며, 특히 AI와 조선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모습이다. 시장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보다는 개별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업종은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조선업에 대해 "정상회담에서 즉각적인 대형 수주나 투자 발표는 없었지만, 미국 조선업 재건이 단기간 내 어려운 만큼 한국 조선업체들의 전략적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방한 의사를 밝힌 만큼 조선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 시점이 뒤로 미뤄졌을 뿐, 없어진 게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 **카카오 잡은 외국인**

8월 다시 '팔자'로 돌아선 외국인 투자자들은 선택지는 전혀 달랐다. 외국인들은 카카오(4888억원)를 가장 많이 샀다. 이 기간 개인은 카카오를 8542억원 어치 처분했다. 순매도 1위다.

〈개인〉

〈외국인〉

카카오와 네이버 투자성적표는 외국인이 앞선다. 7월 말 5만8000원이었던 카카오 주가는 8월 한달간 7.76% 상승했다. 반대로 개인이 가장 많이 산 네이버는 하반기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29만원선에 올라섰지만 지난달 말 23만5000원에서 이달 말 21만4500원까지 8.72% 떨어졌다.

외국인이 카카오 다음으로 많이 산 종목은 현대차(2524억원), 삼성중공업(2054억원), LG씨엔에스(1749억원), 한국전력(1698억원), 삼성전기(1432억원), HD현대일렉트릭(1367억원), 효성중공업(1220억원)등이다.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동시에, 여러 업종을 장바구니에 담는 위험회피 전략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의 하반기 실적 부담으로 지수 상승세는 둔화할 전망"이라며 "지수보다는 업종, 업종보다 종목 중심의 대응이 유리한 국면"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금감원, MBK 제재 착수… '불건전영업행위' 초점

홈플러스 RCPS 처리 등 쟁점
중징계시 위탁운용사 지위 위태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하며 본격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MBK파트너스에 중징계가 이뤄질 경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위탁운용사 취소가 줄 이을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31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면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지난달 28일 MBK파트너스 본사를 현장 조사한 데 이어 제재 절차까지 동시에 진행하며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전방위로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당히 엄중한 사안이고 국민적 관심사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제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번 검사의견서는 지난 3월 금감원의 MBK파트너스 현장검사를 토대로 발송됐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000억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는 이미 검찰에 통보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이번 제재는 MBK파트너스의 불건전영업행위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은 MBK파트너스처럼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의 불건전영업행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검사의견서에도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발행한 RCPS(상환전환우선주) 처리와 관련한 불건전영업행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MBK 산하 투자자문사인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직원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가능성을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MBK파트너스 제재 절차가 개시되면서 제재 범위와 수위에 이목이 쏠린다. 제재 수위는 '등록 취소-영업정지-기관경고-기관주의' 순인데, 기관경고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MBK파트너스가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국내외 영업에서 타격을 받게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답변한 자료에서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법령 위반에 따른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등을 받는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신한자산운용
'S&P500인덱스펀드' 수탁고 2000억 돌파

신한자산운용은 '신한미국S&P500인덱스펀드' 수탁고가 2000억원을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26일 기준 '신한미국S&P500인덱스펀드(UH)'는 최근 3개월 13.54%, 1년 20.14%의 수익률로 동일 유형 펀드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운용성과를 유지하고 있다.

신한자산운용은 환매주기를 단축함으로써 투자의 편의성을 높인 점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수수료 측면에서도 업계 최저보수라는 장점이 존재한다. 특히 온라인클래스의 경우 총 보수는 0.35% 수준으로 경쟁 펀드 대비 경쟁력을 가진다.

/신하은 기자

미래에셋증권
'미래를 위한 STORY' 공개

미래에셋증권이 디지털자산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한 투자정보 콘텐츠 시리즈 〈당신의 미래를 위한 STORY〉를 공식 유튜브 채널 '스마트머니'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시리즈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 Offering)을 주제로 총 5편 제작된다. 지난 14일 공개된 첫 영상은 STO의 개념을 설명했다.

이어 ▲로빈후드 사례로 본 STO ▲스테이블코인의 생태계 ▲탈중앙화 금융(DeFi) ▲STO의 미래를 주제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